해남 '황토나라' 표류

사업단 해체 … 2기 신활력 사업 대상서도 탈락

郡 "테마촌 건설사업 주력 … 내년 5월 가시화 목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남 땅끝 황토나라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황토나라 개발사업단이 해체된데 이어 2기 신활력 사업 대상에서도 탈락해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농업과 축제, 테마촌 등 6개 분야에 180억 원을 투입, 땅끝과 황토를 소재로 '황토 나라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전담하던 추진단이 지난해 말 조직개편 때 해체된 데다 황토나라를 소재로 신청했던 2기 신활력 사업도 '사업부진'을 이유로 탈락해 장기발전 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 추진단의 재구성이나 민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땅끝에 들어설 예정인 테마촌 역시 운영 주체인 유통법인 설립이 장기화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남군의회 일각에서는 "농업과 관광의 복합 모델로 소득과 고용창출이 기대됐던 땅끝 황토나라 개발사업을 군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6개 분야 가운데 일단 테마촌 건설사업에 주력해 내년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전남 5곳 '아름다운 숲' 선정

광양 돈탁마을 숲 등 … 진도 강계마을 해송림 우수상

진도군 강계마을 해송림 등 전남지역 5곳의 산림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지난 6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마을 숲' 부문에는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강계마을 해송림(우수상·사진)과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 숲(장려상)이, '숲길'부문에는 나주 금성산 야생차밭길(장려상)이 선정됐다.

또 '천년의 숲'으로 진도군 의신면 첨철산(우수상)이, '학교 숲'은 장성군 장성여자 중학교(장려상)가 수상했다.

진도 강계 해송림은 400여년생 해송 200여 그루가 숲을 이룬 방풍림으로 지난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부터 산림청과 유한 킴벌리, (사)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공모된 전국 숲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온라인 시민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숲은 표석을 설치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건설 본격화

국립중앙박물관·13개 업체 참가 현장 설명회

반남면 일대 7만여㎡ 430억 투입 2011년 완공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할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90번지 일대에서 열린 설계 현장 설명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지방통합지원팀장과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22일까지 제출된 응모작품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5개 작품을 선정, 이 가운데 1등 업체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영산강 고고학박물관은 부지 7만여㎡에 연건평 1만㎡ 규모로 430억원이 투자돼 오는 2011년 완공된다.

박물관이 들어서는 반남면 신촌리 일대는 대형 옹관고분 35기가 밀집돼 있는 등 영산강유역 고대세력이 최전성기를 누렸던 중심지역이자 전시유물의 역사적 현장이다.

또 인근 고속도로 등지에서 10분이내 접근이 가능한 점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준공으로 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나주시는 시비 2억5천만원을 들여 국토계획변경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박물관 부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완료되면 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광산구 청소위탁사업 개선 효과

t당 단가제 시행 … 연간 8억 예산절감

광산구가 추진 중인 청소위탁사업 개선계획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도시인 신창지구 택지개발지역에 t당 단가제를 적용해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월 2천288만4천원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39%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수완과 하남2·선운지구에도 t당 단가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8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전갑길 구청장은 "지난 8개월간 타 자치구 벤치마킹, 전문가와 NGO가 참여한 태스크 포스팀 운영 등 청소위탁사업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인구 50만 인구시대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온 만큼 앞으로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대형폐기물 분리위탁과 인력 및 차량 적정화 추진 등으로 지금까지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농업박람회도 보고 오색쌀도 받아 가세요

전남도, 7개 전시관 관람객에 증정 키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실내전시관 7곳을 모두 관람하면 기념품이 증정된다.

전남도는 내실있는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7개 전시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소포장 오색쌀과 꽃묘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관람은 생명예술관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관→녹색명품관→아이디어농업관→누에생태관→사이버농업관→농업발전역사관 순서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전문 농업관련행사로는 전국 최고, 최대 규모로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며, 친환경 기술농업 등 한국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장흥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추진

150t에 달하는 초대형 등 2,550여기 산재

장흥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장흥지역은 2천550여기의 고인돌이 산재해 있고 무게가 150t에 달하는 초대형도 발견되는 등 거석문화 중심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댐 건설로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장흥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차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절차가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고인돌의 세계 유산등재와 거석문화 발달방안'을 주제로 문화재 전문가들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또 지난 7일에는 탐진강 행사장에서 고인돌 축조 행사와 고인돌지킴이 결성 및 발대식도 개최됐다.

세계거석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화순이나 고창 등 인근 지역 못지 않게 장흥 고인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문화재청도 차기에 장흥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기자 노트

언제까지 혈연선거 할건가

김 용 기 〈사회 2부 장흥 주재〉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장흥군수 재선거 열기가 뜨겁다. 행정가 출신 백모, 이모씨와 전직 도의원을 지낸 김모씨 등 3~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로 보면 장흥군의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가난한 살림살이에는 할 일이 많다는 '빈즉다사(貧則多事)'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 역시 씨족 선거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문림의향'의 대표적 고장인 장흥은 일부 문중의 응집력이 유독 강해 선거 때마다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씨족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지역사회 큰 병폐로 남아 있다.

최근 중앙부처 차관과 공기업 사장 등의 화려한 경력을 지닌 A씨가 모 정당의 영입제의를 받고도 혈연과 인지도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전직 군수가 군수직을 잃은 이후에도 군청 실·과장 및 읍·면장, 퇴직 공무원과 잇단 모임을 가진데 이어 특정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지금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야할 시점에 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돼가고 있는데다 지역을 회생시킬만한 뚜렷한 경제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장흥군을 이끌어 갈 '선장'이라도 잘 뽑아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 혈연문화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일꾼을 뽑을 수도, 영입할 수도 없다.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세계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장흥지역은 잘못된 선거문화 때문에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지 않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 kykim@kwangju.co.kr